

성보 수탈 아픔, 마애불 조성으로 승화

서산 부석사 8월 9일 마애아미타석불입상 점안법회

서산 부석사에 마애아미타석불입상이 조성됐다.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8월 9일 오전 10시 부석사 경내에서 '마애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덕송총림 수덕사방장 설경 스님을 비롯해 수덕사주지 지은 스님 등 총림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할 예정이다. 부석사가 마애부처님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초 일본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이 논란에 일면서 부터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 보관돼 있다가 왜구들이 약탈해 간 불상으로 대마도 관음사에서 소장돼 있던 것이다. 국내에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부석사는 현재 '불상 반환

금지 가져분 신창'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과거에 부석사에 불·보살상이나 성보들이 많이 모여져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도록 모실 수 있는 마애부처님을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석사 측은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문제로 그동안 부석사에 소장됐던 성보 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32년까지 부석사에는 불상 4점과, 불화·법종 등 성보 10여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분실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석사 신도들은 이에 부석사 인근에 서쪽 방향을 바라보는 자연석 바위에 아미타부처님을 모시자고 의견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았다.

관음보살상 반환논란 계기로 조성 신도들, 자연석에 불상 모시기로 합의 기능 보유자 김대연 씨가 석조각

이번에 조성된 마애불입상은 부석사 산신각 아래 우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높이 4.5m, 폭 1.5m 규모다. 석조각은 석공예 문화재기능보유자 김대연 조각가가 맡았다.

서산 부석사는 지난 부처님오신날에 마애불입상을 미리 공개한 이후 지역 불자들의 기도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경 스님은 "마애아미타부처님 조성은 계기로 부석사를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많아지고 지역불교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번에 조성된 마애불 입상. 높이 4.5m, 폭 1.5m 규모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세월호 희생자 천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북영산작법 보존회(회장 법률, 전주 동고사 주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참사 100일째를 맞는 7월 24일 전주 동고사에서 봉행된 이날 천도재에는 전북영산작법 보존회 회원 30여명과 전주 운전기사 불자회 등 신행단체 회원들이 동참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총 2시간 30분에 걸쳐 바라춤, 나비춤의 작법과 법배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영산작법 고유의식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생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염원했다.

이날 법회는 또 세월 현재 국회에서 통



과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북도 영산작법 보존회는 현재 33명의 스님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18호 지정돼 불교의 전통문화화를 이어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주 죽림사 '연꽃들의 향연' 행사

나주 죽림사(주지 법봉)는 7월 27일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들의 향연' 주제로 지역에 나눔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수 정용주의 소리마당과 이문귀, 최영준, 다음(더프먼스) 등 노래와 음식, 연꽃 감상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연이 피는 세상'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현준순 시인은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은 나눔을 실천하는 청정한 영초이다. 꽃·잎·줄기·뿌리·씨앗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연꽃처럼 아름다운 인연의 꽃을 피우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법봉 스님은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에 와 저력을 먹고 부침개를 같이



만들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매월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죽림사는 향후 정기적 음악회와 문화나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불교영산회, 무형문화재 지정



광주지역 영산작법이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다. 광주광역시 '용진들노래', '광주영산재'를 무형문화재 제 22호와 23호로 지정고시하고 지난 7월 31일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증서를 전달했다.

'광주영산재'의 보유단체로 선정된 (사)전남불교영산회(회장 월인) 소속으로는 범음분야 혜령스님(광주 옥곡사 주지), 법배분야 호산스님(곡성 무각사 주지), 월인스님(광주 법륜사 주지)이 기능 보유자로 지정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통불교연산회 회원스님, 윤장현 광주시장, 송광운 부구청장, 일반신도 등 100여 명 참석했다.

월인 스님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무형문화재로 처음 지정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불교계의 전통의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광주불교계의 큰 기쁨이자 앞으로 계승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인 스님은 "회원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스스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후계자 양성으로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 영산작법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

라고 향후 입장을 밝혔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많은 콘텐츠가 없다고 하지만 오래된 우리 것이 지정한 문화"라고 말했다.

이번 무형문화재 등재된 광주영산재는 "조선시대 호남지역에서 다양하게 발달했지만 전승의 맥이 거의 단절된 지역의 영산재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습득해 전통적인 특성을 잘 유지한 보존 가치를 인정한다"고 광주광역시는 밝혔다.

광주영산재는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로 사람이 죽은지 49일 되는 날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불교의식이다. 석가모니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장면인 '영산회상'을 상징화해 재현한 전통의식이다.

한편, 광주전남불교영산회는 지난 1992년 창립됐다. 전주영산작법 보존회 일람 스님과 석정 스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아 현재 50여명의 회원스님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 연수교육과 9회에 걸친 시연회를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불교계, 올해도 세계순례대회 불참

종교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추진되던 세계순례대회에 불교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지역의 신행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불교연합대책위(상임공동대표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태희 익산불교신도회장, 이하 대책위)는 최근 대회 조직위와 전라북도에서 세계순례대회 불참을 통보했다.

세계순례대회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등 각 종교성지를 순례하며 종교간의 화합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추진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종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세계순례대회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교계의 불참으로 대회규모도 반쪽 대회로 전락해

그 의미는 이미 퇴색된 상태다.

그동안 불교계는 세계순례대회가 천주교의 성지를 중심으로 이어진 순례길로 구성되어 있고 전주, 김제, 완주, 익산 등 일부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성지의 명칭도 불교는 00사암으로 불리는 반면 유독 천주교 성지만 치명자산 성지, 천호성지로 불리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2013년 불교계의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대회가 강행됐다. 또 전주시의 특정종교 예산지원 정책발표가 겹치며 불교계의 반대 속에 대회가 치러졌다.

대책위는 "상대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성보박물관 1종 전문박물관 등록

화엄사 성보박물관이 1종(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성보박물관이 전남도청의 실사를 거쳐 지난 7월 22일 제1종(전문) 박물관(전남제29호, 관장 임복스님, 학예사 강선정)으로 정식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2012년 공사를 완료 한 뒤, 2013년 한 해 동안 성보문화재 정리와 전시관 점검 등으로 유물보존에 대한 준비를 거쳤다.

이후 2014년 상반기 전시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시설들에 대한 최종점검을

마친 뒤 제1종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하게 되었다.

박물관에는 보물 1040호 화엄석경과 1348호 서요충석탑 사리장엄구 등 많은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앞으로 사찰 소장 성보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소중한 전통불교문화를 계승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거사품수 수계법회 성료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는 7월 27일 성흥사 원통전에서 거사품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7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거사품수 수계법회에는 김승수 신도회장, 김용화 전 전북도의원 등 21명의 거사들이 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송월 스님은 "오랜 기간 성흥사에서 수행을 해 온 신도들에 대해 수계식을 치르



게 됐다"면서 "활발한 신행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안전교육 여름 불교학교

청소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여름 불교학교를 개최했다.

7월 28~30일 열린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40여 명의 청소년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안전교육을 비롯해 부처님 노래 배우기, 만다라

명상체험, 미니 올림픽, 부채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송광사 템플스테이 국장 각정 스님은 "학생들이 사찰에 와서 불교적인 정서와 예절을 통해 바른 습관을 익히고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